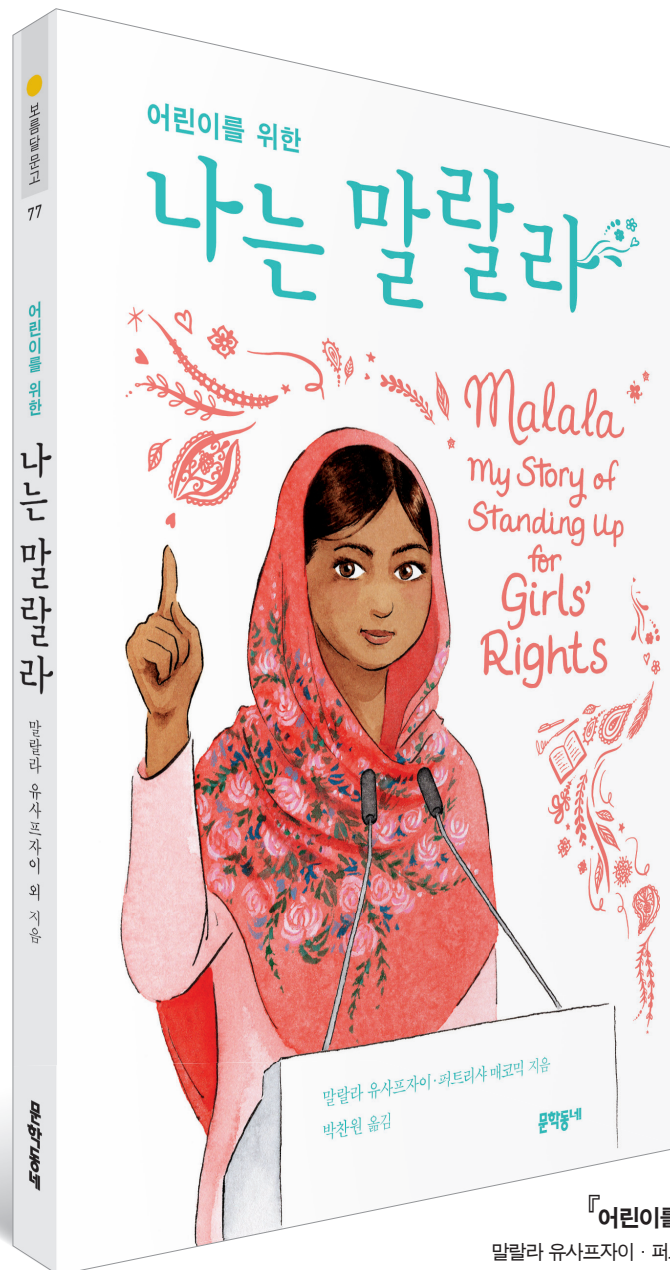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나는 말랄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 페트리샤 매키믹 지음 | 박찬원 옮김

2012년 10월, 말랄라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탈레반 테러리스트의 총을 맞았습니다. 여자아이들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요. 말랄라는 어렵사리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그 용기와 교육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열일곱 살의 나이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답니다. 말랄라가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나는 말랄라』를 읽어 봅시다.

학교	이름

2013년 7월 12일, 말랄라의 열여섯 번째 생일이자 ‘말랄라의 날’로 이름 지어진 그날, 말랄라는 유엔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어요.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말랄라의 연설문을 영어 원문과 함께 읽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요.

Dear brothers and sisters,

Do remember one thing. Malala Day is not my day. Today is the day of every woman, every boy, and every girl who has raised their voice for their rights.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by the terrorists, and millions have been injured. I am just one of them.

So here I stand... one girl among many. I speak not for myself, but for all girls and boys. I raise up my voice not so that I can shout, but so that those without a voice can be heard.

On the ninth of October 2012, the Taliban shot me on the left side of my forehead. They shot my friends, too. They thought that the bullets would silence us. But they failed. And then, out of that silence came thousands of voices. The terrorists thought that they would change our aims and stop our ambitions, but nothing changed in my life except this: Weakness, fear, and hopelessness died. Strength, power, and courage was born. I am the same Malala. My ambitions are the same. My hopes are the same. My dreams are the same.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말랄라의 날은 저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모든 여성, 모든 소년, 모든 소녀의 날입니다. 지금껏 수천 명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소녀로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아닌 모든 소녀와 소년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 이야기를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10월 9일, 탈레반이 제 왼쪽 이마에 총을 쏘았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총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총탄이 우리를 침묵하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수천의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의 꿈을 멈추려 했지만 제 삶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오히려 허약함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강인함과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그대로의 말랄라입니다. 저의 포부도 그대로입니다. 저의 희망도 그대로입니다. 저의 꿈도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이, 한 사람의 선생님, 한 권의 책과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1)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똑같이 있음을 선언하는 글이에요. 여성 차별, 난민, 교육에 관한 다음 조항들을 읽어 볼까요?

세계인권선언 제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또 다른 종류의 견해, 출신 국가나 사회적 계급, 재산, 출생, 그 밖의 모든 상황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에 직면하여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최소한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가 되어야 하고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보통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학업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의 권리를 말하는 선언문이나 조약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와 관련 있는 조항을 적어 보세요.

① 아동권리선언

1959년 유엔에서 채택된, 어린이들의 자유 및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선언.

• 제13조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 제16조 아동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장애인권리선언

③ 여성차별철폐협약

④ 학생인권조례

생각해 보기

예) 테러리스트들이 여학교를 파괴해서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예)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은 장애인권리선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한다.

『어린이를 위한 나는 말랄라』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은 한 문장을 적어 보세요.